



지역 관광산업의 지속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제5회 광주매일신문 관광대상 시상식'이 11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김애리기자

“지속가능 관광 모델 구축으로 지역에 활력을”

“어려운 시기임에도 올 한해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 힘써주신 공직자 및 관련 분야 종사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매일신문은 11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중소회의실에서 수상 기관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회 관광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 관광대상에서는 광주 남구(광주시장상)와 해남군(전남지사상)이 각각 종합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광주 남구는 전통과 서양문화가 어우러진 근대역사마을 '양림동'을 활용한 다채로운 행사 개최로 주민과 외부 관광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양림동 일대에서 펼쳐지는 '굿모닝! 양림축제', '양림&크리스마스 문화축제'는 광주 남구만의 특별한 관광자원이다. 도심 속 숲과 호수 공원을 활용한 '노대에코페스티벌', 올해 4회를 맞은 고씨음놀이 축제와 연계한 퓨전국악·사물놀이 등 공연 한마당은 지역민 문화 향유에

●제5회 광주매일신문 관광대상 시상식 성료

'문화 유적지 활용' 광주 남구·'서남해안 관광' 해남군 종합대상 전희석 장흥군 팀장·정아연 라마다씨원리조트 지배인 특별상

큰 역할을 했다.

해남군은 올해 '캠핑문화 확산'에 주력하며 로컬자원 기반 축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서남해안 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였다.

특히 지난 10월3-6일 진행된 캠핑관광박람회에서는 최신 트렌드의 캠핑장비, 카라반 등을 선보이며 전국 5만여명 캠핑족들의 발길을 이끌었으며, 이로 인해 20여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뒀다.

이밖에도 달마고도 힐링축제를 비롯해 공룡대축제, 명랑대접축제, 해남미남축제까지 각 계절에 맞는 총 4개의 축제를 완성해 전국에 해남 관광을 널리 알렸다.

강진군이 콘텐츠 부문 최우수상, 신안군관광협의회가 MICE 부문 최우수상, (주)다모아해의 여행사가 여행업 부문 최우수상, 광주CS 관광호텔이 숙박업 부문 최우수상, (유)에버그린이 운수업 부문 최우수상, 이벤트 지오가 행사기획 부문 최우수상을 각각 수상했다.

또한 젊은 세대를 겨냥한 기획으로 2024 장흥물축제 성공 개최를 이끈 전희석 장흥군 관광진흥과 팀장과 MICE 단체 및 지역축제 연계 행사 유치를 지역 관광에 이바지한 정아연 라마다씨원리조트 지배인이 특별상을 받았다.

이경수 광주매일신문 대표이사는 “관광산업 활성화는 지역 경제·사회 발전을 이끌어야 할 수

있는 하나의 동력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관광 모델에 관한 새로운 아젠다를 제시하는 광주매일신문이 될 수도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장상을 받은 김병내 남구청장은 “새로운 출발을 알린 백운광장 푸른길 브릿지부터 스트리트 푸드존, 곧 문을 열 시작동 시간우체국까지 특색있는 관광자원을 통해 남구를 알리는데 힘쓰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전남지사상을 수상한 손명도 해남 부군수는 “권역별 관광콘텐츠와 사계절에 맞는 축제를 연계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며 “청정자연을 바탕으로 생활 인구 유치 및 관광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전남 축제 및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획된 광주매일신문 관광대상 수상자는 ▲혁신적 축제·관광 콘텐츠 개발 ▲온·오프라인 축제 및 관광자원화 ▲신규 상품 개발 등에 대한 종합 평가를 거쳐 선정됐다. /최명진기자

최홍운 광주서부교육청 주무관 토목시공기술사 시험 합격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은 11일 “학교시설지원과 최홍운(38·사진) 주무관이 '제134회 토목시공기술사 시험'에 최종 합격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공직에 입문한 최 주무관은 건설공사 설계, 감독 등 업무를 수행하며, 보다 전문적인 실무지식을 습득하고자 주경야독으로 이번 시험을 준비해 합격의 영예를 안았다.

토목시공기술사 자격은 토목시공 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에 입각한 응용 능력이 있어야 취득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국가기술사자격이다. 실제 합격률이 응시인원의 5% 내외에 불과할 정도로 어려운 시험으로 알려졌다.

이번 합격으로 최 주무관은 광주서교육청 소속 직원 중 유일하게 토목시공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됐다.

최홍운 주무관은 “업무를 하면서 시험을 준비하는 일이 쉽지 않았지만, 믿고 지지해준 가족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다”며 “건설공사를 체계적으로 설계·감독해 교육시설 품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다이어기자

류장용 목포해경 경사

겨울바다서 익수자 구조



목포해양경찰관이 최근 신안군 흑산도항 내에서 익수자를 구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11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3시에 흑산도항 내에서 A(50대) 씨가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류장용(39·사진) 경사를 비롯한 해경 3명은 부두가에서 익수자를 확인했으나, 높이가 4m에 달해 다이빙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경찰들은 지체 없이 바다에 사다리를 내렸으며, 류 경사가 입수해 익수자를 구조했다.

구조된 A씨는 항내 계류 중이던 어선의 선원으로, 선내에서 음주 후 부두로 이동하던 중 실족해 물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으나 건강에 큰 이상이 없어 응급처치 후 귀선했다. /목포=정해선기자



광주인권교육원 '세계인권선언 75주년 기념식' 개최

(사)광주인권교육원(이사장 위인백·원장 김재형)은 지난 10일 오후 광주 동구 4·19혁명기념관 대강당에서 '세계인권선언 제75주년 기념식 및 인권포럼'을 개최했다.

기념식은 위인백 이사장의 기념사,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축사, 고재유 전 광주시장의 격려사 및 기조강연 등으로 진행됐다.

위인백 이사장은 기념사에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 스스로 헌정 질서를 짓밟는 행위는 곧 5천만 국민의 인권을 짓밟는 행위”라며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제7공화국’ 수

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재형 조선대 법학과 교수는 “전쟁과 인권 침해 그리고 국제사회의 역할”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분쟁 사례를 통해 전쟁이 초래하는 민간인 학살, 고문, 성폭행, 어린이 강제이주 등 인권 침해의 참상을 설명하며 국제사회의 책임을 역설했다.

한편, 올해의 인권활동가상은 인권 증진을 위한 지속적 노력과 헌신을 한 광주전남춌뿔행동(상임대표 나규복)이 수상했다. /김다이어기자



전남도약사회, 독거 어르신 겨울 내의 600벌 기탁

전남도는 11일 “전남도약사회로부터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2천200만원 상당의 겨울 내의 600벌을 기탁받아 전남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남도청에서 전남 열린 전달식에는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 조기석 전남도약사회장, 오세현 전남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팀장 등이 참석해 나눔의 뜻을 함께했다.

기탁받은 겨울 내의는 전남약사회 회원 1천30

4명이 정성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전남 17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에 전달된다.

조기석 전남약사회장은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온기를 전달할 수 있길 바란다”며 “소의 이웃을 돕고 도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약사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명창환 부지사는 “매년 전남도약사회에서 온정을 나눠주 감사드린다”며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정현택 (주)대창식품 대표 '7천만달러 수출의 탑' 수상

정현택(목포상공회의소 회장·사진 오른쪽서 두 번째) (주)대창식품 대표가 지난 10일 목포 호텔현대대아라관에서 개최된 '제6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7천만달러(약 1천1억원)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

정 대표는 46년간 김 산업에 전념하며 국내·외 50여개국에 수출을 이어왔다. 2003년 100만달러(149억원) 수출을 시작으로 ▲2013년 1천만달러(약 143억원) ▲2018년 3천만달러(약 429억원) ▲2022년 5천만달러(약 715억원)를 달성했고, 올해 7천만달러 수출의 탑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정 대표는 기부천사로도 알려져 있다. 2016년 아나소사이티에 가입하는 등 기부 문화 확산과 지역 인재 양성에 기여했다. 최근에는 전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4천500만원, 목포복지재단에 1천만원을 기탁했으며, 전남경찰청 범



범범 컨퍼런스 지원단에 1천만원, 신안군장학재단에 2천만원을 후원할 예정이다.

정현택 대표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했던 7천만달러 수출의 탑은 지역민의 관심과 성원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기술 혁신과 전략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전통식품인 김을 널리 알리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목포=정해선기자

전남도, 김장김치 5천500박스 430개 시설 나눔

전남도는 11일 목포농수산물유통센터에서 박민서 전남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영록 전남지사의 부인 정라미 여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를 개최했다.

2014년부터 시작한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는 매년 겨울철을 앞두고 50여 규모 김장김치를 담가 사회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등에 나누고 있다.

올해는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3억5천만원을 후원해 5천500박스(53.8t)의 김장김치를 담갔다. 사회복지시설 430개소에 김장김치를 전달한다.

정라미 여사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외롭



고 힘든 겨울을 나지 않도록 모두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이 필요하다”며 “사랑이 담긴 김장김치 드시고 따뜻한 연말연시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시원기자



광주사회적경제기업 26곳, 간편식 기부

광주사회적경제 선도기업 26개사가 광주시에 갑배, 컵라면 등 간편식을 기부했다.

26개사는 11일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500만원 상당의 갑배, 컵라면 등 간편식 2천680개를 기부했다.

광주시는 기부 물품을 지역 사회복지시설 11개 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2017년부터 사회적경제 선도기업 육성·지원 사업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을 발굴·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26개 기업이 선도기업으로 선정됐으며 올해 신규 선도기업은 (주)엔아이디와 예쁜손공예협동조합 등이다. /변은진기자

인사

한국도로교통공단 ◇2급 ▲광주시·전남도지부 심재홍

부음

▲박선숙씨 별세. 조경희(목포해양대 수학과 교수)·민규(산울요양병원 원장)·영규(군포 지생병원 가정의학과 과장)씨 모친상=발인 13일(금) 오전 7시 광주 그린장례문화원 1층 VIP실(062-250-4455).